

3차시. 중앙선침범 사고

학습목표

1. 국내법령에서 제시한 **중앙선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중앙선침범사고의 사고유형과 판례분석을 통해 **처벌 관련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3. 중앙선 침범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를 설명할 수 있다.

1. 개요 - 중앙선의 개념

1.1 중앙선

- 황색실선: 자동차가 차로를 넘어갈 수 없음
- 황색점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곧바로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
- 황색실선과 점선이 복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곳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갔다 돌아올 수 있지만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

1.2 중앙선 침범 사고의 정의

: 자동차 등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에 따른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유턴·후진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3 중앙선 침범 사고의 일반적인 유형

- ① 고의 또는 의도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
- ② 현저한 부주의로 중앙선 침범 이전에 선행된 중대한 과실사고
- ③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U턴 또는 후진중 사고 발생시 중앙선 침범 적용

2. 대표 사고유형

(1)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 충격 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가?

- 중앙선 위반에 해당한다. 두 개의 노란색 실선에 해당하는 중앙선은 어떤 경우에도 서로 넘어서는 안 된다. 가해차량이 좌측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는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

(2)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이전 차로로 복귀하여 후방차량과 충격 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가?

- 도로의 신호와는 무관하게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만일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 사례

- (1) 유턴 가능 구역 직전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격 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가?

-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 (2)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가 있는가?

- 다른 운전차량에게 들이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게 되면서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봐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 (3)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다른 차량과 충격 시 중앙선 침범 사공에 해당하지 않는가?

-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행위로 시작된 것이라면 사고발생장소를 묻지 않고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가해차량이 중앙선침범사고를 일으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4. Q&A

- (1) 건설 회사가 만든 임시 중앙선도 중앙선에 해당하는가?

-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은 구청이나 경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황색 점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아파트 구내도로의 중앙선 침범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발생 시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가?

- 상황에 따라서 중앙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일 때는 중앙선을 넘어가더라도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니더라도 과실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더라도, 맞은 편 차량에게 경고를 하거나 차량의 흐름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5. 안전가이드 Tip

- ① 중앙선 침범사고는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 ② 자동차가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뿐만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들어가는 경우도 중앙선 침범이 된다.
- ③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앞지르기는 반드시 가능한 지역에 서만 실시한다.
- ④ 유턴은 점선 표시가 되어 있는 유턴지역에서 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 ⑤ 아파트 단지, 주택가,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아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
- ⑥ 좁은 도로에서 주, 정차된 차량을 피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 맞은편 차량의 운행상황을 확인하여 방어운전을 하도록 한다.
- ⑦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과실은 인정된다.
- ⑧ 차에 추돌당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⑨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을 경우 항상 주의하여 운전한다.
- ⑩ 중앙선이 없는 길에서는 가상의 중앙선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 ⑪ 졸음이나 과로운전 등으로 인한 중앙선침범 사고가 빈번하므로, 운전자는 적당한 운전시간을 지키고 고소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